현재 본인을 가장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? (5/3 월 11시까지) (1000자 내외)

현재 상태에서 딱히 불안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시험도 끝났고, 딱히 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없이 널널한 상태입니다. 그런 와중에 찾아보자면, 전 요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정이 잡혀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. 사람을 만나서 교류하는 행위 자체는 즐기는데, 한 번 그 일정이 잡히면 그 전까지 긴장하다가,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결국 그 날과 다음 날은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. (~4/29 목)

그리고 최근 친구를 만났습니다. 그 아이들은 본인의 길을 향해 바쁘게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. 저만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너무 불안합니다.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만 같고, 그 아이들과 만나면 제 자신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. 아마 제가 부족해서이겠죠. 이런 부족한 저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(4/30~5/1)

또한, 이 글을 쓸 때까지는 제게 이런 시련이 닥칠 거라 생각지 못 했는데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. 할 일을 끝까지 미룹니다. 방금 제게 시련이 있었는데, 이는 눈보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. 장학금 신청을 해야만 했는데, 전 약 한달 전부터 미뤘습니다. 단지 귀찮아서요. 그러다가 최근 일정이 바빠지면서 할 일이 없다가 마감 당일 날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. 어찌저찌 시간에 쫓겨 양식을 다 완성하고 재학증명서만 떼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. 재학증명서는 온라인으로만은 뗄 수 없었습니다.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하하. 망했습니다. 눈 앞의 떡을 놓친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. 더 미루지 말자. 무조건 손해본다. 라는 점입니다. 근데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. 바뀌고 싶은데 힘든 건 싫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거겠지요. 그냥 무기력합니다. (5/2~5/3)

Ps. 교수님 언제 한 번 뵙고 싶습니다..ㅠㅠ